

예배를 배워 봅시다.

예전에 예배자 학교에서 강사로 섬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받으실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기에 예배자 학교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개설하여 예배에 대하여 함께 배우고 나누던 때였습니다. 그 때 나누었던 강의안 중에 몇가지를 요약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예배를 세워 가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글 중에 언급되는 이름은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추측은 삼가해주세요. ^^

· O 집사의 주일 예배

한 주간 동안 빠듯한 비즈니스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는 토요일 오전, 오랜만의 화창한 날씨라고 L 집사가 전화를 한다. 골프장에 나가자고 한다. 이미 Team을 구성해 놓고 기다린다. 기본도 전환할 겸 오랜만에 운동도 할 겸 주섬주섬 챙겨 집을 나선다. 파란 하늘과 푸른 잔디 속에 부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맘이 즐겁고 피로가 풀리는 듯 하다. 오전에 시작된 골프가 오후 서너 시에 끝이 났다. 몇 주전에 교회에 새로 등록된 P 성도가 그냥 집에 들어 갈거냐고 물어 본다. 아마도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궁금한 것이 많은 가보다. 새 교우이고 또 바로 집에 가봤자 별일 없을 듯하여 가까운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들어 가기로 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시간을 보니 어느덧 10시가 다 되었다. 내일은 주일인데 늦잠 잘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다.

드디어 주일이다. 아침부터 아이들이 일어나 법석이다. 졸린 눈을 비비고 눈을 떠 보니 10시 30분이다. 일어나 샤워하고 아침 먹고 옷을 입는다. 몸이 췌뚱하다. 시계를 보니 11시10분이다. 교회까지는 5분이면 가니까 조금만 더 앉아 있다 가자지... 소파에 앉는다. 잠이 소르르 온다. 몇 분이 지났을까. 깜짝 놀라 깨어 보니 11시 27분이다. 황급히 나와 시동을 걸고 교회로 향한다. 도착해 보니 찬양팀이 올라 오고 있다. 휴~!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구나.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떠 보니 L 집사도 황급히 들어 오는 모습이 보였다. ㅋㅋ! 마음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찬양하려니 입이 열리지 않는다. 그냥 부르는 시늉이나 해야겠다.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찬양이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가요는 신나고 좋은데 요즘 찬양은 나하고는 안맞는 것 같다. 찬양도 트로트풍의 신나는 곡은 왜 없나? 박수치며 노래는 따라 부르지만 마음은 열리지 않는다.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전히 주일 예배는 별 감동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찬양에 조금씩 빠져가는 듯하지만 여전히 즐겁고 하품이 난다. 대표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살짝 졸아 봐야지... 대표 기도 시간을 마치고 나니 조금은 정신이 난다. 누가 알랴. 목사님 설교 시간. 언제나 들어도 뭔가 알 듯 말 듯한데 잘 생각해 보니 모르겠다. 볼펜을 꺼내서 주보에 낙서를 해 본다. 남들이 보면 설교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일게다. 일거양득이다. 시간도 보내고 경건해 보이고... 언제 끝나나. 시계를 보니 아직도 20분 이상이 남았다. 오늘 예배 끝나고도 어제 그 멤버들 끼리 같이 모여 2차전을 나가 봐야겠다, 주일 오후 스케줄을 구상해 본다. 설교 시간에 앉아 다른 생각 하려니 죄송하지만 그게 더 기대가 된다. 이제야 마음도, 몸도 깨어나는 것 같다. 이제 설교 끝나고 결단의 기도 시간이다. L 집사와 눈이 마주쳤다. 주고 받는 눈길 속에 마음이 통했다. 축도 시간이 기다려 진다. 예배 중에 축도 시간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 예배야, 어서 끝나라. ~~~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요 소식

- 1) 원주민 선교 참가자 교육
 - 주일 예배 후 오후 2시 부터 아래 층에서 있습니다.
- 2) 목장 리더 모임
 - 6월 9일 (주일),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 3) 벨라쿨라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죽" 판매 (여전도회 주관)
 - 6월 16일 (주일), 예배 후 교제 시간에 벨라쿨라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죽"을 판매합니다. (단팔죽, 호박죽 / 1개 \$8, 2개 \$15)
- 4) 새벽기도의 선율 Duo Concert (김민경 집사 / 정성우 형제(비올리스트))
 - 6월 9일 (주일) 오후 5시, Anverly Centre
- 5) 2024 VBS(여름성경학교) (문의 하선미전도사 604-768-5811)
 - 일시 :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 주제 : 창조이야기 · 등록비 : 20불 · 봉사 자원 교사 모집
- 6) 제3기 제자훈련반 수료 제3기 제자훈련반이 6주간 교육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료자: 고평임, 권다함, 류연지, 윤은수, 임경자, 주성덕)

■ 감사

- 1) 특별 찬양 특별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 주신 "나미렐레 우쿨렐레 찬양팀"과 "비올리스트 정성우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 6월 - 7월 주요 교회 행사 안내

- 1) Father's Day 6월 16일 (주일)
- 2) 2024 VBS(여름성경학교)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 3) 씨리한인교회 마더와이즈 1기 6월 5일 - 8월 7일 (수요일 10:30 - 12:00pm)
- 4) 교회연합회 주관 교민연합집회 6월 26일(수) - 6월 28일(금) @ 씨리한인교회
- 5) 원주민선교 집회 (주관 Love Corps) 7월 5일(금) - 7월 6(토) @ 씨리한인교회
- 6) 벨라쿨라 선교팀 파송 주일 예배 6월 30일(주일)
- 7) 벨라쿨라 원주민 단기 선교 7월 5일(금) - 7월 6(토) (6박 7일)

온라인 헌금 방법: 이메일 주소 offerings2spc@gmail.com
 - 메모란에 이름, 헌금번호, 헌금분류 표시
 - 비밀번호: SPC2020

섬기는 사람들

- 원로목사 및 파송선교사 홍성득 (Sung D. Hong) 목사
- 담임 목사 권태욱 (Jonathan Kwon) 목사
- 부교역자 윤은수 목사 (중고등부/청년부), 하선미 전도사(유치부/유초등부) 이영미 전도사(영아부/유아부)
- 시무 장로 김향덕, 우종근, 조석희, 박종덕 · 협동 장로 임선중
- 반 주 김민경

코람데오
 Coram Deo
 LIVING BEFORE THE FACE OF GOD



씨리한인교회
 SURREY PRESBYTERIAN CHURCH

15964 88 Ave. Surrey, B.C. V4N 1H5 • TEL. 778-222-2582

